

광주동물보호소, '케어' 대표 고소

광주동물보호소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 중인 지역 동물보호단체 가치보듬(대표 조경)은 지난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박 케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치보듬'은 입장자료를 통해 "박 대표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보호소에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동물보호소에 직접 와 본 적 없는 박 대표가 보호동물 관리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박 대표의 '지자체 동물보호소 대량도살' 반박

짓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는 무분별한 안락사와 후원금 유용 등으로 곤경에 처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동물단체와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폄하·매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가치보듬'은 "지난해 기준 광주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은 총 3269마리이며 10.7%에 해당하는 351마리만이 안락사됐다"면서 "적정관리 동물은 250마리지만 지난해 430마리 이상을 보호했고 올해는 적정관리 동물 수를 상당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부족·보호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도 보호동물 한 마리라도 더 살려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락사는 소생이 어려운 경우에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사 등의 참관 하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보듬' 조경 대표는 "박 대표의 허위주장으로 광주동물보호소 근무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조 대표는 또 "시민의 의식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관리동물 개체별 치료내역 등을 공개한다"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동물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유기동물 여제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하고 이를 단체 회원들에게 숨긴 채 모금활동을 벌이고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춘경 기자

환경분야 422곳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4월19일까지 국민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4대 환경분야 422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진단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5곳, 상수도시설 280곳, 공공하수처리시설 96곳, 폐기물 매립장 1곳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준수, 불법 유통 예방 체계 확립 여부, 테러 진용 가능 물질의 판매·유통 등을 점검한다. 또 상수도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내진설계 반영 여부·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 중인 시설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단속·경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면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손으로 느끼는 졸업사진 한빛맹학교 졸업생들이 18일 서울 강북구 한빛맹학교 3D 졸업사진 전달식에서 자신의 얼굴을 3D 프린터로 만든 흉상을 만져보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 "방계유족 뺀 공법단체 설립해야"

방계유족 보상법 따라 유공자 유족 인정돼
발미 주지 않는 방법 공법단체 설립이 최선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 가짜 의혹 제기를 받은 색원하기 위해서는 5월 3개 단체를 묶어 공법단체를 만들고 유공자에서 방계유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계유족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다"며 "방계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혁신위는 "민주유공자 유족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 3개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곳은 국가보훈처"라며 "국가보훈처가 5·18보상법을 근거로 방계유족이 유족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관을 인가해 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발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는 오월 3단체가 방계유족을 제외한 하나의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방계유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법단체를 꾸리지 못하

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유공자 운운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추모공간에 민주유공자 명단 4312명이 공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5·18민주유공자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돼 있는 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농촌 빈집 등서 가전제품 절도 40대 구속

농촌의 마을회관과 빈집에 들어가 가전제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서는 18일 빈집 등에 침입해 수차례에 걸쳐 TV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나주시 한 마을회관에 들어가 TV 1대를 훔치는 등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나주와 담양 등 곳곳에서 5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직을 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농촌마을은 오후에는 빈집이 많은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농촌마을에서 도난신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을 파악한 A씨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도주하던 중 추체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폐요양병원서 '공포체험' 방송 중 시신 발견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공포체험' 방송을 하던 1인 미디어 진행자가 숨진 60대 남성을 발견,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폐업한 모 요양병원에서 A(68)씨가 숨겨 있는 것을 1인 미디어 방송인 B(3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최근 인기있는 '공포 체험' 방송을 하기 위해 폐업한 요양병원의 허물어진 담을 넘어 들어갔다. 병원 곳곳을 돌며 방송을 진행하던 중, 2층 입원실에 숨겨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A씨 주변에는 이불과 옷 등이 놓여 있었으며, 지갑 속 신분증을 통해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요양병원에서 노숙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폐지 절도 발각되자 경비원 때린 5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훔치던 중 마주친 경비원을 때린 혐의(강도상해)로 A(5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창고에서 종이상자(3만 원 상당)를 훔치려다 이를 말리던 경비원 B(67)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상자를 싣던 것을 B씨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빈 사무실서 동료 지갑 텀 2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회사 동료들의 지갑을 텀 혐의(절도)로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4일과 같은달 7일 오전 7시1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다녔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2명의 지갑에 든 15만 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원이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교육장에서 교양 수업을 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서 술값 내지 않고 종업원 협박 50대 구속

충북 음성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음성군 대소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 B(44)씨와 승강이를 하다가 컵을 던지고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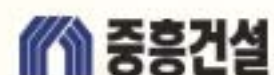
A씨는 일행 2명과 51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